

# 동서의 문화는 인류문화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

## 「하와이」 동서문화센터 방문 인사말

1981년 2월 5일

총장, 직원 및 내빈 여러분!

동서양의 문화가 교차하는 이곳에서 양문화권의 교류와 이해의 상징인 동서문화센터를 방문하게 된 것을 본인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본인이 미국 「레이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아세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동노력을 강화하기로 다짐하고 귀국하는 길에 이와 같은 기회를 갖게 되어 더욱 뜻깊은 감회를 느끼는 바입니다.

동양과 서양은 지역적 여건과 역사적 배경이 다르므로 해서 각각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문화는 어느 한쪽을 택하기 위해 다른 한쪽을 외면하거나 파괴해야 하는 적대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쪽의 부족한 부분을 다른 한쪽의 장점으로 보충함으로써 각자의 발전은 물론이고 전체 인류문화의 향상에 공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서의 문화는 인류문화를 이끌어가는 두 수레바퀴로서 양자의 관계는 융화와 동반, 협력과 보완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서문화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나는 이 센터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그 동안 훌륭한 성과를 거두어 온 것을 충심으로 경하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동서문화센터가 배출한 3만여명의 졸업생 가운데 한국학생만도 1천여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은 조국의 발전과 인류의 번영을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국민을 대신하여 동서문화센터에 대한 심심한 사의를 이 자리에서 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